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To Laos

Daisy's Newsletter | Volume. 11 | 2017. 01



응용생명과학부 1학년 강의 중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강의가 있다.

2016년에 응용생명과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우들 중 5명의 학우는 2학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 라오스로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라오스를 다녀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팀에서 팀장을 맡았던 박보경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라오스로 탐방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회로 다녀온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주제를 갖고 팀티칭(team teaching, 이하 팀티칭)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팀 프로젝트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해서 라오스 견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2. 팀티칭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에서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그 중에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저희 조는 ODA와 KOICA에 대해서 대구 북구 침산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3. 아, 그렇다면 처음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도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ODA나 KOICA는 물론 원조에 대한 단어적인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팀티칭 수업을 하고 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을 위한 설문지 조사에서 많은 친구들이 좀 더 원조나 국제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산중학교를 방문한 학생들의 팀티칭 현장.



5. 국제협력개발의 이해라는 과목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고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 배운 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수업을 처음 접했을 땐 ODA에 대한 정의도 모를 정도로 국제사회의 문제나 원조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 원조역사와 현실을 알 수 있었고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원조라는 것이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내가 배우는 농업이라는 분야를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 라오스를 다녀온 팀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오스는 16학번 권민아, 박보경, 손진산, 임태섭, 정보석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원래 팀 티칭 팀원들 중 2명이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어서 2등을 했던 조의 두 명과 같이 라오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 팀원들이 다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새롭게 팀으로 꾸려진 친구들도 1학년들을 함께했던 식물생명과학 임시배정 친구들이라서 허물없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6. 혹시 앞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데 이번 방문이 본인에게 끼친 영향이 있는지?

일단 처음 대학, 응용생명과학부로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농업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어서였는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수업내용이 해외원조에 대한 내용이고 또 우리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해외원조와 농업개발에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수업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5. 라오스에서는 어느 지역 또는 기관을 방문하였나요?

라오스 비엔티엔에 가서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와, 코피아 라오스 사무소, 학사이 마을견학, 린첸마을 봉사활동, 라오스 대사관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6. 많은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이나 기억에 남는 기관이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팀원들은 봉사활동을 꼽을 것 같은데, 저는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바람에 라오스 대사관에서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라오스 대사관에 가서 윤강현 라오스 대사님께서 라오스에 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한국의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해주시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의 소리 : 잠깐! 알고가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증여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開途國)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최빈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기관.

